

## 한국 다원예술 현장과 담론

- 그 격렬한 도전과 현재진행형의 과제 -

### The Landscape and Discourse of Interdisciplinary Arts in Korea: Its Radical Challenges and Ongoing Tasks

한석진(Han, Seok Jin)\*

김성희 (편)(2023).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 작업실유령.

무용학자인 필자는 주저없이 스스로를 ‘페북 키드’라고 부를 것이다. 2007년 ‘스프링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페스티벌 봄’으로 이어진 한국 다원예술 축제가 남긴 예술적, 담론적 유산을 바탕으로 연구자이자 비평가로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경계에 도전하고 질문하는 한국의 동시대 예술실천가와 이론가 중 페스티벌 봄을 시작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다원예술 프로그램, 읍/신 페스티벌까지 이어진 한국 다원예술 현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상주의, 지배담론을 타파하려는 다원예술의 태생적 특성상 한국 다원예술 현장이 김성희 기획자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말하면 반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장르적 경계짓기와 실천과 이론 간의 간극이 팽배한 한국의 척박한 예술 현장에서 김성희 기획자의 행보가 가져온 영향력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존의 개별 장르 중심 페스티벌에서 이따금 소개되었지만 좀처럼 쉬이지 않고 이탈자 취급을 받아왔던 급진적 예술 실험들을 하나의 축제 기획 속에서 소개하고, 이러한 성격의 작업을 하는 국내 예술가를 발굴하여 조명하였다. 동시에 예술적 실험에 담겨있는 사유에 주목하고 예술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김성희 기획자는 2002년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달려온 외롭고 치열했던 여정을 멈추고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읍/신 페스티벌 예술감독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2023년에는 이전에 소개된 예술작품을 선별하여 재공연하는 회고전 성격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편저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2023년 읍신 페스티벌 기획과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새로운 글이 소개되기 보다는 이미 발표된 참여예술가의 글과 인터뷰, 그들 작업에 대한 비평 및 학술적 담론, 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조교수, jinnysjhan@gmail.com

획자의 소회 및 통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다원예술 현장이 뿌리내리고 그 지형을 확장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글들을 한데 모아 20년간의 현장 담론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장 ‘변화를 위한 질문’은 페스티벌 봄(2007~2013)이 열리는 데에 내외부적으로 기여한 참여 예술가, 기획자, 관객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기획자(페스티벌 봄 창립자이자 예술감독 김성희, 혁신적 페스티벌 기획의 선구자인 프리 레이션)의 비전과 태도, 참여예술가(윌리엄 포사이드, 제롬 벨,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담론 및 소고, 비평가(김남수, 서현석, 지크문트 외 4인)의 진단, 페스티벌 봄 키즈(고주영, 구자하, 서영란, 정진세)의 회상 등을 포함한다. 구성적으로 볼 때 이 장은 글의 발간 시기가 아닌 내용적 연관성에 따라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 페스티벌 봄은 1990년대 이후 서유럽 및 북미 공연예술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기존 예술 장르의 매체, 개념, 방법, 형식, 경계를 교란시키는 시도들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첫 페스티벌이었다.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성격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원예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고, 이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 및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국내외 맥락 속에서 특정한 미학적 스타일이나 방법론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김성희, 2023, p. 19)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함께 분류되는 예술적 실천들을 설명하는 담론 구축이 요구되었다. 페스티벌 봄에 참여한 국내외 예술인들이 이를 주도해나갔고 그 결과들이 모아진 내용이 해당 챕터를 구성하고 있다.

두 번째 장 ‘아시아를 다시 보기’는 아시아 예술 현장과 담론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기획된 프로그램(2013~2016)을 다룬다. 이 페스티벌은 서구 중심의 예술 담론에서 벗어나고, 아시아를 타자화된 시선에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예술이 비평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며, 아시아 예술의 좌표를 주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김성희, 2023, p. 78).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기획에 대한 내외부적 시선(김성희, 김남수, 마티아스 릴리엔탈, 야마구치 마키코, 요우미, 헬리 미나르티), 개관 페스티벌 참여한 아시아 작가의 관점 및 접근(호추니엔, 아피차퐁 위라세타꾼, 마크 테)과 이들의 작업을 탈근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다루는 비평(이경미, 서현석)을 포함한다.

세 번째 장 ‘사유하는 공동체’는 한국 시각예술계의 헤게모니가 총체적으로 작동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기획된 다원예술 프로그램(2017~2018)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대 예술계에서 퍼포먼스는 종종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하는 미술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하지만 어쩌면 실패를 담보로 하는) 강력한 형식이자 방법론으로써 작동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다원예술 프로그램은 정치적, 미학적 실천으로서 퍼포먼스를 전면화하여 미술관을 정치화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가능성을 탐색하고 매체적 확장을 꾀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한 탈타자화된 아시아 예술에 대한 통찰을 이어가면서 아시아 동시대 작가의 신작을 소개했다. 이 장은 참여작가(김지선, 아너 테레사 다케이르스마커르, 엘 콘테 데 토레필, 로이스 응, 르네 폴레슈)의 진술 및 소회, 그들의 작품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담은 글(이경미, 마리 소르비에, 서현석, 크리스토프 브리앙송, 최승희)을 담고 있다.

마지막 장 ‘불가능을 상상하기’는 김성희 기획자가 구축해온 다원예술 현장과 담론을 총망라한 옴/신 페스티벌(2020~)을 다룬다. 앞선 장과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비판적 사유와 전술(마틴 스펡베르크, 메테

에드바르센, 엘 콘데 데 토레필, 오카다 도시키, 임고은, 팀 에철스)과 이들 개별 작업에 대한(이경미, 빅토리아 페레즈 로요, 허명진), 다원예술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미학적 의미와 한국적 맥락에 대한(김신우, 보야나 쿤스트, 성용희) 비평적 담론으로 구성된다. 페스티벌 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다원예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춤 실천과 담론이 옴/신 페스티벌에서 재주목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무용학자로서 필자는 김성희 기획자가 페스티벌 프로그램과 단행본 구성에 있어서 춤을 그 시작점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단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춤은 “어떤 형태의 치장도 없는 자리 그 자체”이자 말과 이름이 부여되기 전의 몸이며(바디우, 2010, p. 122),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의미나 맥락을 부여하지 않는, 즉 춤추기 외 의미가 삭제된, 목적이 없는 자기지시적 행위(스팽베르크, 2023, p. 214)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상징, 언어 체계와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는 상태로서 춤은 상업주의, 출세주의, 효율주의적 풍토 아래 억압받고 소외되는 사회비판적, 비전통적, 전복적, 급진적 예술의 상태이자 조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원예술의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은 기존의 실천 및 학술적 담론을 나열하고 일관된 논지를 펼치지 않는다. 특정하기 어렵고 늘 정의나 경계에서 빠져나가는 다원예술의 특성이 그러하듯 이 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다원예술의 이념, 원칙, 방식은 여전히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 실천을 통해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현실 이면에 자리잡은 정치성을 드러냄으로써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호소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다원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예술 현장 기획자의 역할 및 태도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한다. 김성희가 언급했듯, 다원예술 분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이 집중되는 극장 중심 제작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의 장을 마련해주는 페스티벌 공동 제작 시스템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김성희, 2023, p. 21). 그리고 이러한 공동 제작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경영자로서 보다는 비평가이자 담론 생산자,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기획자의 역할에 의해서이다. 서유럽 예술계의 자본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간 기획자 프리 레이션의 글로 이 책의 맨 처음과 마지막을 채웠다는 점에서도 김성희 편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우익화와 상업주의적 풍토로 인해 예술계에서 내몰리는 실험적 작업을 지속가능케 하는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방향성을 설계하는 기획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 참고문헌

- 알랭 바디우(2010). **비미학**. 장태순 역. 서울: 이학사.  
 마텐 스팅베르크(2023). 필요. 김성희 (편).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 (pp. 211-214). 서울: 작업실유령.